

제2절 일화¹³⁰

1. 1948년 독도폭격사건¹³¹

1948년 6월 8일 오전 11시쯤 오키나와 주둔 미 공군의 폭격으로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어민 14명[일부 기록은 16명],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울진 어부 8명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사망한 어부는 울진을 온양1리 박춘식·조성룡·오재옥·김응화·이춘식, 삼율리 김중광 등 6명이며, 권진문과 오재덕은 생명을 구했다.

당시 비극은 일본이 독도를 미국 공군에게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데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군정 하에서 서둘러 종결됐다.

6·8 독도폭격사건은 서로 다른 당시 언론보도만으로 그 진상이 알려졌다. 희생자 유족들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독도정책과는 2018년 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아 6월 8일 독도에서 위령 행사를 열고 유족 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동북아역사재단팀과 함께 울진에서 모두 3가구의 유족을 확인했다.

2. 가선공(嘉善公) 김기학(金起鶴) 시혜담(施惠談)

1864년 근남면 산포리 김기학은 천성이 순후하고 근검 치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신의 재산이 많다고 국가나 지역을 위하여 시혜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김기학은 사욕도 없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전 재산을 희사했다. 조선 순조 때 가선대부를 증여 받았다.

당시 창덕궁 인정전에 불이 나서, 중수용재를 영월 국유림에서 벌채하여 한강으로 옮겼다. 울진군에는 역사(役事)에 드는 인부 350명이 할당된 것을 1천 냥으로서 자기가 대납 면제했고, 계해년과 갑자년에는 흉년이 연속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자, 돈과 곡식을 내어 구호하면서 그해의 국세는 자신이 대납했다. 또 정축년 울진현 객사 중수 때에는, 천 냥을 스스로 부담하고 군승전수심(君承田守心)과 함께 공사를 추진하던 중, 준공을 보지 못하고 별세했는데, 운명에 이르러 그 아들에게 유언하여 공정을 완수하도록 하였다 한다. 현

130. 일화는 2001년 발간된 『울진군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울진문화원의 요청으로 기존 군지를 참고하여, 독립된 절로 편성했다. 울진군, 1971, 『울진군지』; 울진군, 1982, 『울진의 열』; 울진군, 1984, 『울진군지』;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설화』; 『디지털울진문화대전』의 내용을 기본으로 구성했다.

131. 울진문화원의 요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은 광복 직후 독도에 관한 최대 사건으로, 독도가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홍성근, 2020,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1-1948년 독도폭격사건, 동북아역사재단.

재 연호정 건물은 이 객사 동쪽 일부를 이축한 것이다.

3. 경복궁 중건

1865년(고종 2) 흥선대원군은 집정 후 국정개혁을 단행하면서 국왕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가 위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각 지방에 원납전을 부과하고 전국 우수한 국유림에서 재목을 벌채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합된 재목은 산적이었으나 불의의 화염으로 소실하고 말았다.

흥선대원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광범위한 벌채가 시작되어 울진 국유림[황장림]에서도 벌채하기로 되었다. 십이령 서쪽에서 벌채되는 재목은 낙동강 상류인 서면[현 금강송면] 분천강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동쪽에서 벌채되는 재목은 울진 남대천 하류 염전 둑까지 운반하여 뗏목을 만들어 각 포구로 이동한 후, 다도해(多島海)를 돌아 강화도 앞을 따라 내려가 한강을 거슬러 올라 용산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현령은 관속과 풍헌[면장]을 독려하여 전군에 출역을 명하고 매일 실적을 감영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령은 방울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작업 인부를 독려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속들은 출역 인부들을 이리저리 빼놓고 대상(代償)으로 징수해 착복하기도 했다. 국가사업은 많은 부과로 민폐는 더욱 심하였다. 출역하는 인부는 10일 정도의 식량을 휴대했고 목적지에서 정해진 기일이 지나면 교대하게 된다. 십이령에서 울진염전둑까지 50~60리 사이에는 아침밥과 저녁밥 짓는 연기가 무지개처럼 연속되었다 한다. 울진은 서울과 멀리 떨어졌을 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집합된 재목만으로도 충분했기에, 이미 해상으로 운송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 후중한 재목들은 그 자리에서 썩고 말았다 한다. 당시 경복궁 ‘대들보’는 울진십이령 황장목이 사용되었다고 지금까지 노인들의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

4. 고려평장사(高麗平章事) 박승중(朴承中) 울진 유배

1126년(인종 4) 이자겸 일파가 숙청될 때, 당시 중서시랑평장사에 있었던 박승중은 울진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당시 국왕의 권위를 위협하던 이자겸의 측근으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박승중은 울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2년 후인, 1128년에 본관인 무안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비록 큰 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문한(文翰)으로 여러 대에 걸쳐 관직에 있었고, 명성이 높았다는 이유로 예우해준 조치였다. 그러나 박승중은 유배지를 무안으로 옮긴 지 얼마 후 사망했다.

5. 고포참사(姑浦慘事)

1905년 5월 28일, 울진의 고포(姑浦)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 2척과 러시아 군함 1척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산으로 피난했는데, 피난 도중에 파도에 밀려온 어형수뢰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상하게 생긴 물건에 호기심을 느낀 주민들 간에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났다.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형수뢰가 폭발하여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화가 발생했다.

6. 광재우 울진거

광재우의 호는 망우당이다. 1593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광재우는 몸에 홍의를 입고 향토의 군병을 모집·훈련하여 왜적을 대파했고, 그 후 정유에는 의병을 재창했다. 당시 읍들이 궤멸 상태였으나, 광재우가 지킨 곳의 민중은 안정된 생활을 지속했다. 당시 계모 허씨가 창녕군 화왕산성에서 병사하자 일시적 정난을 피하여 울진으로 왔다. 원남면[현 매화면] 금매리 장정동(長井洞) 방어사곡(防禦使谷)에 체재하게 된 후로는 두문불출하고 자제들을 거느리고, 당시 서민들의 일반용 립(笠)인 폐양자(弊陽子, 페리)를 제작하는 죽세공으로 생계를 도모했다. 그때 울진과 가까운 읍 인사들이 다수 내방하여 시사에 대한 문답이 자주 있었다. 난이 끝난 후, 선조가 벼슬을 권했으나 끝까지 듣지 않고 비슬산으로 다시 옮겨간 후부터는 그곳에서 연화(煙火)가 끊겼다고 한다. 망우당의 울진 피난 동기는 왜란 중인 선조 병진 7월에 충청도 서인 이몽학이 국난을 계기로 정권 획득의 야망으로 사병을 모아 난을 일으켰다. 홍산현을 밤에 습격하여 현감 이영성을 사로잡고, 임천군으로 진격하여 군수 박진국을 사로잡고, 다시 청양과 정산 등 6읍을 모두 함락시켜, 군병도 수만에 이르렀고, 세력은 커서 조야중외(朝野中外)가 진요(震撓)했다. 이몽학군은 다시 홍주로 진공하였고, 목사 홍가신이 민병을 급히 모아, 홍주인 무장 박득의와 박명현, 전병사(前兵使) 신경항 등과 서로 모의하여 수성의 계략을 세웠고, 또 남포현감 박동선과 수사 최호·권율·김덕령 등 여러 장군이 거느린 정부군이 맹렬하게 공격하여, 이몽학군의 선봉이 싸움에 져서 흩어지자, 이몽학은 자기 부하에게 피살당했다.

난이 끝난 후, 이몽학의 밀서가 발각되었는데, 문서에는 이몽학이 무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당시의 명사이자 명장인 이덕성과 김덕령을 임의로 기입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덕성은 3일간 대궐 밖 대문 앞에서 엎드려 죄를 빌어 죽음을 면했으나, 김덕령은 그의 임진왜란 당시 공을 시기하는 윤두수의 평소 사감으로 무소고집(誣訴固執)에 의해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 외에도 공이 있는 병사들의 무죄 피살을 무수하게 본 광재우는 조정의 현찰(賢察)이 없음을 통탄하고, 계모상을 빙자하여 울진으로 멀리 피하여 관로에 발을 넣지 않았던 것이다.

7. 구슬령(珠嶺)의 대호(大虎)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서쪽 외선미리에서 영양으로 넘어가는 곳에는 구슬령[구실령, 珠嶺]이라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옥녀묘(玉女墓)라고 부르는 푸른 무덤(靑塚)과 옥녀사(玉女祠)라는 사당이 있다.

옛날에 한 장사꾼이 한밤중에 구슬령 산꼭대기에 다다르게 되었다. 한밤중이라 산을 넘는 것은 위험하여 산꼭대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오두막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설 만한 곳이라고는 옥녀사라는 사당밖에 없었다. 결국, 장사꾼은 옥녀사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당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장사꾼은 사당의 문틈으로 밖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큰 호랑이가 사당 앞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것 같았다. 장사꾼은 몹시 놀라고 무서워서 상(床) 옆의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당 안에서 엄하게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비록 미약한 물체라도 저 장사꾼은 내 집에서 머무는 손님인데, 네 감히 그에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고 하니, 호랑이는 성난 소리를 내더니 종적을 감추었다.

장사꾼이 다음 날 아침에 사당 밖으로 나가보니 어제 호랑이가 두 발로 땅을 수 척을 파서 뒥굴고 간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는 구슬령을 통과하는 백성이나 장사꾼들은 신령님의 존재를 믿고 소원과 바람을 이 사당에 기도하면 행운을 얻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8. 만호(萬戶) 이문빈(李文賓)의 유임(留任)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이문빈(李文賓)에게 강원도 영동지방은 소금과 약초 등이 많이 생산되니, 이익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문빈이 수완이 능숙하므로 그곳에 가 일을 하라면서 울진만호(蔚珍萬戶)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문빈은 만호로 임명받아 도착 즉시 부지런히 일하였고, 관리하는 일도 무난하게 이루었다.

이항복은 자미(資米)를 통천(通川)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북로(北路)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충당하게 하였다. 그해에 생산된 소금과 약초들이 이문빈 부임 첫 겨울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항복은 이문빈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미가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문빈의 임기가 연장되도록 조정에 상소하여, 무미(貿米)가 끝난 뒤에 직을 옮기도록 하였다고 한다.

9. 봉성군(鳳城君)과 울진

울진군 북면 소곡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1km쯤 가면 대왕산(大王山) 아래에 봉전암(鳳田庵)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이곳을 절터골이라 부른다. 이곳은 조선 중종의 여섯째 아들인 봉성군이, 1545년(인종 원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의 여파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을 온 곳이다.

을사사화 후 김명윤(金明胤)과 윤임(尹任)은 종친 중에서 명망이 있었던 봉성군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했다. 울진에 유배된 봉성군은 봉전암에서 매일 뒷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았으므로, 산 이름을 대왕산이라 불렀다.

봉성군은 명종 2년에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다. 울진으로 자결 명령을 가지고 온 금부도사는 차마 명령을 전하지 못하고 장사 준비를 마친 후에 전했다. 봉성군은 조용히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금부도사에게 내 목을 조르라 하고 죽으니 불쌍하다고 우는 울진사람들이 많았다.

지방 사람들이 대왕산 동구 밖에 사당을 짓고 그의 원혼을 위로하였다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취조차 없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2km쯤 떨어진 큰골 원무덤골에는 퇴락되어 형체를 알기 어려운 봉분이 큰, 주인 없는 무덤이 있는데, 봉성군의 묘라 구전되고 있다.¹³² 봉성군은 1570년(선조 3) 신원(伸冤)되고 복관되었다.

10. 산촌학장(山村學長)과 호랑이

1801년, 울진현령 구진(具縉) 때, 통고산 자락에 67가구의 농가가 세상을 등지고 화전(火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뜻있는 사람들이 학동(學童)을 모아 서당을 지어 20여 리 밖의 훈장을 초청하여 글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훈장은 위풍이 매우 당당하고 소리치는 음성 이 대단히 커서, 짹짹하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와 마을 사람들은 “꽤선생님”이라 불렀다 한다. 꽤선생님은 언제나 한문자(漢文字)로 말을 즐겨 부르므로 마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을은 워낙 산골이라 호랑이가 때때로 나타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호랑이가 나타나 꽤 선생의 장인을 물고 갔다. 놀란 꽤 선생이 바위틈에 숨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원산호(遠山虎) 근산래(近山來)하여 오지장인(吾之丈人)을 납거(拉去)하니 동중지인(洞中之人)아! 유창자(有槍者)는 집창이래(執槍以來)하고 무창무궁자(無槍無弓者)는 집곤봉이급래(執棍棒而急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문화유적총람(<https://portal.nrich.go.kr>)

來)라[먼 산 호랑이가 가까이 와서 나의 장인을 물고 가니 동네 사람들아! 창이 있는 자는 창을 들고, 창과 활이 없는 자는 몽둥이를 들고 급히 모여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였고, 장인은 호랑이에게 물려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껍선생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음을 패씹하게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을 관가에 고발하였다. 원님은 크게 노하여 마을 사람들을 형틀에 올려놓고 문초했고, 마을 사람들은 껍선생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뜻을 몰라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원님은 껍선생을 형틀에 올려놓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소경에게 단풍 구경하라는 것과 같다 하고 곤장을 치려고 하였다. 껍선생은 “애호둔(暖呼臀)아! 불효막대한야(不孝莫大漢也)라 지사무한(至死無限)이오 나 이후에는 불용한자(不用漢字)하오리다” 하였고, 원님은 대노하여 태형 10대를 쳐서 돌려보냈다. 관아(官衙) 문 앞에 한쪽 눈이 실명된 숙부가 와서 이 모습을 보고 조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니, 껍선생이 “양인누삼행(兩人淚三行)”이라 하였다. 모였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모두 웃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1. 수토기담(搜討奇談)

경상북도 울진군에는 1896년 갑오경장 이전까지 울릉도 첨사(僉事)가 파견되어 삼척의 영장이나 월송 만호를 겸임하여, 3년에 한 번씩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반란자나 도둑을 토벌하러 왔다. 토벌하러 올 때는 의식을 장엄하게 갖추어 구산동사(邱山洞舍)에서 바람을 기다려 출발하는데, 순풍을 만나면 이틀 후에 울릉도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한다.

평해군수가 수토(搜討)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용무를 끝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섬을 떠나려고 하는데, 담뱃대를 숙소에 두고 온 것을 알았다. 군수는 사환을 시켜 숙소에 있는 담뱃대를 찾아오게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군수는 다시 졸병을 시켜 찾아오게 하였다. 졸병은 사환을 사방으로 찾았으나 행적을 알 수 없었다. 군수는 어쩔 수 없이 담뱃대를 찾지 못하고 배를 타고 돌아갔다.

3년 후, 군수가 다시 울릉도로 수토하러 갔는데, 담뱃대를 찾으러 가서 사라진 사환을 만났다. 사환은 군수에게 뜻밖에 담뱃대를 주는 것이었다. 군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담뱃대를 찾아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였다. 군수는 사환에게 그동안의 일을 물어보았다.

사환은 군수가 놓고 간 담뱃대를 찾아 성황사가 있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서 사환의 허리를 안고 놓아주지 않아, 섬 아래로 떨어져서 그 소녀와 동거한 지가 어언 3년이 되어 간다고 했다. 사환은 수국(水國)이 대륙(大陸)보다 생활하기 편하다고 하며 담뱃대를 돌려주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군수는 정신이 어지러워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별할 수 없어 한숨을 쉬다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담뱃대를 찾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12. 예방수(穢防藪)

예방수는 평해면 삼달리 대안호안공사장(對岸護岸工事場)에 있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월현(月峴)을 넘으려 하자, 평해군수가 계락을 세워 예방 송림(松林)에 가서 나무를 베어 군복을 걸쳐두고 깃발로 꾸미고, 석회를 냇가에 풀었다. 적의 정찰병이 송림의 군복과 냇물의 색깔을 보고, 군대와 군량이 충분하다고 본진에 돌아가 보고했다. 적은 수비가 충실한 것으로 알고 영해로 퇴진하여 평해군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예방수[예방 숲]라고 말한다. 적(敵)을 예(穢)라고 칭한다. 이후 예방수는 읍인(邑人)이 베어 폐허가 되었다 한다.

13. 용호승유(龍湖勝遊)

만휴(萬休) 임공(任公) 유후(有後)는 원래 풍천(豐川) 사람으로 족숙(族叔) 소암(疎菴) 숙영(叔英)으로부터 수학했다. 효의는 물론 문장이 당대에 저명했다. 인조 병인에 등과 급제하여 가주서(假注書)로 있을 때 정변과 가화를 피하여 무진년 울진에 피신하여 근남면 행곡리에 우거함으로 20년간에 유학을 진흥하여 학풍이 대진하였으며, 향유 십 여인과 더불어 용호(龍湖)의 달밤을 이용하여 주호(酒肴)를 갖추고 장락(長樂)하였는데, 만휴는 호탕(豪湯)중 수삼배(數三盃)에 「장당장(張堂長) 언개(彦愷)는 회해(誼諧)가 선(善)하고 전수재(田秀才) 선(銑)은 초성(楚聲)이 선(善)이라」 하였으니 그 승유(勝遊)를 가상(可象)하겠다.

14. 울진 7월 상납 폐지

1827년(순조 27) 원남면[현 매화면] 기양1리 지품동에서 태어난 장무신(張武臣)은 용모도 순수하고 호협한 성품이 있어, 일찍이 관아(官衙)에 들어가 이방으로 있을 때 세금을 모아 나라에 7월 상납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당시 상납(上納)은 전답결세(田畓結稅)와 진상품(進上品)이 배정되었는데 연중상납과 진상(進上)이 매월 있었다.

울진은 해안지방이므로 어곽(魚藪), 전죽(箭竹), 마포(麻布), 약재(藥材), 대구포, 문어, 홍합 등 건어물과 결전(結錢), 선염분곽세전(船鹽盆藪稅錢)과 호포세(戶布稅)를 징수하여 말 등에 싣고 운반하여 십이령을 넘어 충청도 단양 앞 강에서 강선(江船)으로 한양까지 운반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세전(稅錢)은 아전이 서울지방의 유리한 물품으로 바꾸어 서울의 주인에게 매도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어 아전[공무원]들이 좌우하는 노름판과도 같았다.

그해 7월은 비가 몹시 와서 홍수로 많은 생명을 잃고 교통도 끊기었다. 그런데 현금을 지니고 하인 1명과 서울로 떠난 장무신(張武臣)은 충주지방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서 여장을 풀었는데, 뒷방에서 기생들의 장구 소리와 아름다운 가락은 나그네의 수심을

일깨워 장무신(張武臣)도 주석에 같이 어울려 한잔하고 거나한 술기에 노름판에 뛰어들어 한 바탕 벌렸으나 상납전(上納錢) 전액을 모두 잃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하룻밤을 지새운 뒤 데리고 온 하인에게 여비를 후하게 주어 울진으로 가게 하며 “충주까지 서방님[張武臣]을 모셨으나 갑자기 배탈이 나서 서울까지 모시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고하여라. 만일 이 일이 탄로 나면 너와 나는 물론 가족까지 모두 처형되니 그리 알라”하고 돌려보낸 후, 그는 삭발하고 원주(原州) 치악산 상원사에 들어가 소허(素虛)라는 승명(僧名)을 하고, 참승[참중]이라 자처하고 1개월을 지냈다.

원주감영(原州監營)[원주도청]에서는 울진 상납이 오지 않았다고 호통이 대단하였다. 그런데 장무신은 탁발 중으로 촌집에 내려가 강가에서 바랑 속에 깊이 숨겨둔 울진현령의 상납 조목을 진흙을 묻혀 적셔서 말린 후 바랑 속에 넣어 원주감영에 찾아가 영리(營吏)에게 이 목록을 내어주면서 “소승이 시주 왔다가 단양 강가에서 주워보니 관가의 문서 같아서 바치나이다”하고 돌아섰다. 감사가 이 목록을 받아 본즉 울진현 상납 일행은 홍수에 떠내려가 죽음이 분명하므로, 나라에 장계(狀啓)를 올려 이번에는 울진 7월 상납을 면제케 하고 앞으로 7월 상납은 9월로 바꾸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울진현령에게도 아무 문책 없이 그해 상납은 무사히 넘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빈소를 차리고 장무신이 떠난 지 두 돌이 되는 날에 소상(小祥)을 지내게 되었다. 소허(素虛)[장무신] 스님은 이 절과 저 절로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의 소상 날에 삿갓을 눌러쓰고 바랑을 메고 염주를 손에 굴리면서 그날 집을 찾아드니 애통해하는 처자의 울음소리와 조객(弔客)들이 찾아들고 있었다. 문앞에 다가서니 자기 동생이 나와 스님이 오셨다고 하며 한 상 잘 차려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사랑 마루채에서 하룻밤을 쉬었다.

삼경[한밤 중]이 되어 고요한 밤에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지라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자기 부인이었다. 종일토록 접빈객에 지쳐버린 자식들은 깊은 잠에 떨어지고, 아내 뿐이었다. 가만히 빈소 방에 들어가 부인의 등을 두들기니 깜짝 놀란 부인이 돌아보며 소리 치려는 것을 제지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다음 해 삼년상(三年喪)도 잘 치르라고 일러주고 자녀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보고 부인과 헤어져 처소로 돌아와 눈물로 밤을 새운 뒤 부인이 특별히 마련한 아침상을 먹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쪽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잠깐의 실수가 평생을 망쳐 놓는 일이다.

15. 울진보부상군(蔚珍樞負商軍) 질청 습격(秩廳襲擊)

1891년 신묘 10월, 군수 맹흠철 시대에 울진 보부상군이 질청(秩廳)을 습격한 일이 있었다. 보부상은 구한말 수구파 정객의 배경으로 된 외곽단체로, 한때는 전국적으로 유력한 조

직이 되어 각 군 시장마다 지분사가 설치되어 그 세력이 대단했다.

갑오동학란 때 전주감영에 있어서는 관군이 모두 출동하게 되자 후방경비는 보부상군이 전담하여 각 관아를 수호한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 조직이 융희 초년까지 계속하였다. 보부상은 곧 등짐장사로서 통칭명은 부상군이다. 조직 초기인 1880년대에는 철도와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는 우마차까지도 없었으며, 해상에는 범선 이외에는 외국 기선이 개항장에 출입할 뿐이다. 제반 물화는 등짐과 마태(馬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각 시장을 순회하면서 교역상을 행하는 것이다. 조직은 근본정신면에 있어서는 취할 것이 없었으나, 자체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급이 정연하였다. 시장마다 반수, 접장, 공원, 집사 등이 있고, 상부에는 수령이 있어 수시로 그 부서의 진도를 순회 감시하여 동료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인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훈계, 태벌, 상행위 금지 등 자율 제제가 대단히 엄격하므로 관인들도 간섭 못 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부상청 간섭을 도리어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또 보부상들이 배경만 믿고 행패를 부리는 수도 있으므로, 군수 맹흠철은 부상군의 탈선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중앙상무사로부터 올진분사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부상군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고, 이에 의세한 관속들이 부상의 자율행동까지 간섭하고 때로는 금품을 강요했다. 이것이 불평의 싹이 되어 도령 김사원, 반수 전급문과 박영서, 접장 전재선과 박성천 등 소임이 밀의한 후 사발통문을 돌려 정해진 날에 질청을 습격하고 관속의 월법 행위 등을 탄압했다. 그때 이방의 원편 귀가 물어 뜯겼다 한다. 맹 군수는 주동자 박영서를 잡아들여 태형을 한 후 후일을 훈계하고 모인 군중을 즉시 해산하게 하고, 이방을 불러 이후로 부상군에게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분부하였다 한다.

16. 이백년(二百年) 현송(絃誦)

옛날에 관로(官路)[국가에서 관리하는 간선길]가 기성면 정명에서부터 용연삼산을 거쳐 장항을 넘어 매화리로 통했다. 어느 날 한 감사가 평해군을 순도하여 노정이 용연[굴실]을 지나게 되어 현재 정명리 마을을 배회하면서, “이곳은 200년 현송 할 지리이지만, 수세가 불량함이 애통하다” 했다. 그 후 현종 때 평해군 사림이 명계서원을 창건하니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했다.

17. 전서고기(傳壻古基)

기축면 사동은 술사(術士)가 말하기를 강릉 이남의 명기(名基)로서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정선군수 권조(權組)의 구기(舊基)였는데, 명유(名儒) 이홍천(李洪川)이 일찍 권씨 집안의 사위가 되어 그 장원(莊院)을 물려받았고, 이홍천의 사위 사직(司直) 정창국(鄭昌國)이 또 이

터를 사위 황씨에게 주었다. 황씨는 사위가 없는 까닭에 드디어 황씨세수(黃氏世守)의 땅이 되었다고 전한다.

18. 주성세(朱星世) 역사(力士)의 실화기담(實話奇譚)

주역사(朱力士)는 울진군 북면 소곡 1리 소야마을(蘇野村) 출신으로 강릉 부사(江陵府使) 의(懿)의 후손이다. 태어나자마자 방안을 걸어 다녔으며, 삼칠일이 지난 후에는 빨랫돌을 들고 다닐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잘 먹이지 못하여 타고난 힘을 다 발휘할 수 없음을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부모는 아이가 힘은 장사지만 배 불리 먹이지 못하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로 인해 집안이 화를 입지 않을까 하여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 궁리한 끝에 마음은 아프지만, 집안사람들을 위해 아들의 어깨를 끌로 파서 다시는 힘을 쓸 수 없도록 하였다.

주성세에 관한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주성세가 밤이 깊어 북면 덕구리(德邱里)에서 주인리(周仁里)로 가는데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흙을 퍼붓고 놀리었다. 주성세는 그 주위에 있는 냇가의 돌로 호랑이를 반격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 냇가[周仁川]에 가보니 돌이 하나도 없었다. 주성세가 호랑이에게 던지면서 쥐었던 돌은 전부 부서져 흙이 되어버려 냇가에는 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둘째, 하루는 주성세가 나무를 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올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잠시 바위 밑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꼬리로 누르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주성세는 급히 일어나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던지니 죽어버렸다. 그날은 나무 대신에 호랑이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셋째, 흥부장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 귀가하는 도중에 어떤 부잣집에서 불이 나 한참을 타고 있는데 마침 주성세가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주성세는 그 집의 서까래를 집 앞뒤로 넘어 다니면서 수십 개를 뽑았다고 한다.

넷째,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주성세는 십이령과 삼척 등지를 다니며 보부상을 했다. 갈령재 도둑들이 보부상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주성세임을 알고 함부로 달려들지 못했다. 주성세가 도둑들을 상대하려고 하니 살생을 할까 두려워서 한 가지 꾀를 내었다. 황소 두 마리를 큰 서까래 같은 나무 양쪽 끝에 한 마리씩 거꾸로 어깨에 메고 재(嶺)를 넘으니 멀리서 보던 도적들이 매우 놀라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19. 죽존(竹尊) 박영선(朴永善) 현령기(縣令記)

1889년 1월, 울진현에 박영선(朴永善)이 현령으로 부임해왔다. 그는 한국 최초 신문인

『한성순보』의 주필로, 국내에서는 유명한 문사였다.

박영선은 현령으로 부임한 후 점점 부패하여 가는 국정을 한탄하고 군정보다는 술에 취하여 시문을 읊고 세정을 한탄할 뿐이었다. 당시에는 군수가 사법 행정을 전담하던 관제였기에 박영선은 항상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행정을 집행했다. 범죄자를 문초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곤 하여 형틀에 죄인을 묶어놓고 태형을 가하다가 잠이 들다 보니 형리가 계속 태형을 가하게 되어 사소한 죄인도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하며, 반대로 중죄인도 가볍게 판결해 득을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현령의 별칭을 ‘박 몽둥이’라고 했다.

수하 관속들은 이런 기회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여 사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지역의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의분에 넘친 지역 사람 전호기(田鎬基) 등은 동지와 같이 일정계라는 정치 탄압단체를 조직하고, 박영선의 군정 불찰의 책임을 추궁하고, 관속의 횡포를 탄압하여 군민의 억울함을 돌봤다.

당시 지방행정 감찰제도는 암행어사와 도순찰감사가 간혹 직접 또는 밀사를 보내어 지방 수령의 시정을 조사 감찰했는데, 박영선은 워낙 배경 좋은 유명인사라 별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인사 평점을 중(中)으로 받고 별 징계 없이, 다음 해 8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내직인 정내금장(政內禁將)으로 승진되어 갔다.

20. 청주포교(淸州捕校) 생매장사건(生埋葬事件)

1894년 갑오 4월, 현령 심규택 재임 당시 충청북도 청주감영 포교 12명이 본 군에 온 일이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정계는 혼선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관헌 역시 상탁하 부정으로 탐관오리의 행패가 날로 더 심해졌다. 전라도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민중의 힘으로 수리하여 놓고 전평수세를 횡령 착복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기회만을 엿보던 민중은 항거운동을 전개했는데, 곧 전봉준과 전동석이 이끈 동학란이다. 국란 중에서도 청주감사는 영동 바다에 보양 재료인 해구(海狗)가 잡힌다는 것을 알고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얻기 위해 범죄자 추적 탐색이란 명목으로 포교를 파견한 일이 자주 있었다. 파견한 포교에게는 정당한 여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초료상(草料狀)이라는 무료 식권을 휴대하게 했다. 초료상은 관외 다른 도의 경우에는 해당 도의 감사에게 제출하면, 그 도에서 포교의 활동 지역 군수에게 관내용 초료상을 재교부했다. 그러나 청주감사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주식(酒食)제공과 심지어는 금품까지 강요했다. 특히, 원남면[현 매화면] 덕신리 역에서는 그들의 행패가 더욱 심했다. 당시 도사령(都使令) 이화백(李化白)은 이들이 포교라는 이름으로 강도 행위를 한다고 하여, 울진포교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12명 전원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직속 원주감영에게 보고했다. 엄봉삼구도(嚴奉三九度)와 장형을 집행하는 사령을 지명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이는 곧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다. 현령은 월변

송정에서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로 12명의 죄수를 끌고 왔다.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 당황하는 표정은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현령은 만단(萬端)으로 위무(慰撫)한 후 주효(酒肴)로 간권안심(懇勸安心)하게 했다. 형리가 도지시문(道指示文)을 낭독하고 사형을 선언하자, 즉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구덩이에 산 채로 묻었다. 소식이 청주에 전해졌고, 유가족과 동료들은 당시 동학란에 합세하여 원주감영에 항의하고 감사를 핍박했다. 영문(營門)의 방어가 삼엄하여 다른 사고는 없었으나, 한 무리가 십이령을 넘어 울진을 습격한다는 연락이 있었다. 현령은 관포군과 민병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총지회에 중군(中軍) 최재린(崔在麟)에게 두천(斗川) 이상의 중요 지역을 엄중히 방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학은 관군과 청나라 원병의 포위 공격으로 울진까지 공격할 여유가 없어 다행히도 화를 면하게 되었다 한다.

21. 현령(縣令) 남예원(南禮元) 선정비(善政碑)

울진읍에서 죽변통로인 신촌가도 왼쪽에는 20여 기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비석에 기록된 관장(官長)들이 지방과 민중을 위하여 베푼 선정을 영세불망(永世不忘)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물이다. 그 누가 무슨 행정을 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중 명확한 것 하나를 소개하면 현령 남예원은 원산인으로, 1886년(고종 23) 3월에 부임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인자하고 후덕한 평민적인 성격이었다.

정부에서 본현(本縣)에 상납전을 할당했으나, 질병과 흉년으로 변출할 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방도를 모색하고자 향로대표가 향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남현령이 참석해 이 고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납전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서울 집에 통지하여, 일천 냥을 병조에 상납하고 영수증을 원주감영에 부쳐 완납됨을 보고했다. 군민들은 한 조각 돌에라도 그 덕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선정비를 건립했다.

22. 형평사(衡平社)와 울진(蔚珍)

1924년 11월 울진청년회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평사 울진지회가 결성되었다. 조직 2개월 후 지회장 최정일이 병사하자 형평사 울진지회에서는 관습을 깨고 관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1925년 1월 14일에는 원남면[현 매화면] 기양리 기전동에서 백정의 부인이 동제(洞祭)에 사용한 제수품 가운데 콩나물을 얻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회에서 벌을 받았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울진단체가 총궐기하여, 회원 40여 명이 기양리 기전동으로 갔다. 경찰에서도 만일을 대비하여 특무가 동행하게 했고, 매화주재소 경관 2명은 무장으로 대비했다. 형평사는 쌍방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알아본 후, 동리 책임자로부터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23. 환생전(還生殿)과 백극재(白克齋)

현령 백극재는 양주(楊洲) 사람이다. 1396년(태조 5)에 올진현령으로 부임한 지 불과 3일 만에 왜구 간길랑(干吉郎) 일당이 쳐들어왔다. 왜구는 울릉도를 침입 본거지로 하여 동해안 일대는 물론이고, 울진읍성까지 완전히 불태우니 읍소(邑所)는 폐허가 되고, 성안에 살던 백성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니 조정에서는 한성판윤 장순열(張巡烈)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산성을 옮겨 축조하기로 허가하였다. 백현령(白縣令)은 왜구의 침입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 고산성(古山城)에 읍성을 신축하고, 산꼭대기에 있던 능허사(凌虛寺)를 없애고 관사(官舍)로 만들어 왜구의 침입에 빈틈없이 준비했다.

이듬해 가을 갑자기 백극재 현령이 병이 들어 결국은 신음하다가 죽었다. 그날 밤 백현령 부인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남편의 시체를 고이 모셔 불영사(佛影寺)에 옮겨 백일기도를 드리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다음날 백발노인의 지시대로 시체를 그대로 불영사에 옮겨 백일기도를 드렸더니 과연 백일만에 죽은 백현령이 다시 살아났다.

백현령의 부인은 현몽한 백발노인이 불영사의 도승(道僧)인 소운대사(小雲大師)와 너무나 닮기도 하고, 백현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을 부처님의 은혜로 여겨 보답하기 위해 법당을 지었다. 그 법당의 이름을 환생전(還生殿)이라고 하였다. 환생전은 현재 불영사 대웅보전 동편에 있는 황화실(黃華室)이다. 그 후에 백현령은 이조판서의 지위까지 올라갔다.

24. 황보리(黃堡里)와 아계영상(鵝溪領相)

이산해(李山海)[1539~1609]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평란공신으로 아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문충공의 시호를 하사받았다. 이산해는 토정비결을 지은 이지함의 조카이며, 이지번의 아들이다. 이지번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해관에서 잠을 자면서 부인과 정사를 나누는 꿈을 꾸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부인도 그날 밤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후 부인은 태기가 있어 10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산해였다. 산해관 몽교로 인하여 태어났다고 하여 아이의 이름을 산해라고 지었다고 하였다. 또 귀신의 아이라고 하여 백일하에 다녀도 그림자가 없었다고도 하였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하인이 쇠스랑을 메고 가는 것을 보고 ‘되 산(山)’ 자라고 하였으니, 재주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다섯 살 때는 숙부 이지함이 독서와 사색에 빠져 식사하는 것을 잊고 있자, 숙부를 보고 시를 지어 읊었다고 한다.

1556년(명종 13)에 진사 시험에 급제하고, 선조 3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호당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조판서·대제학·좌의정을 거쳐 율곡 선생의 예언대로 영의정까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산해의 주장으로 임금은 서북 변경으로 피난을 하였다. 그곳의 백성들은 이산해가 나라를 망쳤으니 벌을 주고 정철은 석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은 이산해의 무죄를 알면서도 정철을 석방하고 이산해를 평해 황보리로 귀양을 보냈다.

황보리로 귀양을 온 이산해는 평해 일대의 산천을 누비며 국정의 어지러움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연민하고,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운 세월을 시로 달래었다. 이때 시집 2권이 문집으로 간행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기성면 사동 해월헌의 헌기와 월송정의 월송정기와 같이 양정에서 지은 시 등은 아직까지 전해져 『울진군지』에 기재되어 있다. 정탁의 청원으로 5년 뒤에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어 전란 수습의 공을 인정받아 아성부원군에 책봉되었다.

김봉숙